여수시, 농작물 폭염·가뭄 피해 예방 총력

현장 지원반 가동…농업용수 긴급 공급·영농기술 지도

여수시가 폭염·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는 22일 "폭염·가뭄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서 등의 협조를 받아 급수차 등 장비와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6월부터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현장 기술지원반을 가동해 가뭄 대비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또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농업용수 공급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살수차 4대와 레미콘 4대, 산불진화차 1대를 동원해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돌산읍 평사리와 화양면 옥적리를 찾아 벼 재배농지 1.3ha에 45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여수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화재 진압 등 비상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소방차를 지원하는 등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인들도 양수 장비를 적극 동원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밭작물은 짚이나 풀로 덮어 토양수분의 증발을 막는 등 농작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가 폭염·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벼 재배농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국립국악관현악단 초청 영화 콘서트

26일 시민회관서 고전영화 테마 '여우락 영화관' 공연

여수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여수시민회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한국 고전영화를 테마로 한 오케스트라 라이브 콘서트인 '여우락 영화관'을 공연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국악관현악 콘서트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여우락'(여기 우리음악이 있다) 공연을 통해 매년 대중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신작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고전영화를 소재로 한 영화 콘서트를 준비했다.

이번 '여우락 영화관'은 멜로영화 등 한국 고전영화의 명장면 위에 각기 다른 분위기의 라이브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영화 속 섬세한 감성과 감동을 전하게 된다.

해방 후 최초의 영화인 '자유만세'부터 '미워도 다시 한 번', '맨발의 청춘' 등 7편의 한국 고전영화 명작과 함께 40인조의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라이브연주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공연되는 이번 공연의 초대권은 청음악기사, 비엔나레코드, 신나라레코드, 예총여수지회 등 지정 배부처에서 배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시민회관팀(061-659-3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주민자치위·LG화학ABS공장, 소라면에 사랑 나눔

여수시 소라면 주민들을 위한 사랑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소라면 주민자치위(위원장 정훈식)가 지난 17일 소라면 사무소에서 소외계층 지원금 100만원을 소라지역사회협의체에 전달했다.〈사진〉

소라 주민자치위는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무료진료서비스, 결혼이주여성과 친정부모 맺기, 꽃밭 가꾸기, 사랑의 쌀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여수산단내 지역대표기업인 LG화학 ABS공장(공장장 문상호)이 소라면 덕양경로당 등 9개 경로당에 450만원을 후원한 후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을 대접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말복을 맞아 지역민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LG화학이 준비한 이날 행사는 여수시상품권으로 삼계탕, 콩국수, 과일 등 음식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박춘순 소라면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준 주민자치위와 LG화학 ABS공장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온 직원이 힘을 모아 외롭고 힘든 주민들을 섬기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 ABS 공장 직원들은 지난달 19일에 자체 성금을 모아 쌀 100포와 라면 230상자를 외로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제공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의료봉사에 장학금까지…몽골 오지에 펼친 여수 인술

지구촌사랑나눔회·은현교회 선교팀 사랑 나눔 귀감

2005년부터 가축·밀가루 지원…지하수 관정도 준공

18세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던 간바르트 철몽(여·30) 씨는 지난 2010년 여수은현교회 선교팀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다. 당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걷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현 여수시의사협회 회장인 박기주 원장(여수사랑요양병원)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그녀의 신경을 되살리기 위한 한방요법과 재활치료에 온 힘을 쏟은 결과 다리 감각이 살아났고 누워지낸 지 7년 만에 휠체어 없이 홀로서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걷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몽골의 한 소녀에게 새로운 삶과 꿈을 선물해 준 여수은현교회 봉사단이 지구촌사랑나눔회 소속 박기주 원장과 서현기 사무국장 등과 함께 지난달 다시 몽골을 찾았다.

지난 7월20일 몽골 봉사를 위해 출국했던 30여명의 여수 은현교회 봉사단 일행은 9박10일 동안 몽골 오지에서 의료봉사와 가축지원 등 봉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30일 무사히 귀국했다.

여수은현교회 봉사단이 지난 2005년부터 장학금과 가축지원,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칭기즈칸의 고향인 빈데르 솜과 바양아트락 솜 지역은 몽골 수도(울란바트라)에서 자동차로 1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초원지역. 이 때문에 은현 봉사단은 새벽부터 비포장 도로 등을 13시간 가까이 달린 후에야 현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부터 빈데르솜과 바양아트락솜에서 이틀 동안 박기주 원장의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자 3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약제실·검사실 까지 갖춘 은현봉사단의 수준 높은 의료 봉사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물이 부족한 현지 여건을 감안, 바양아뜨락 솜 선교당에 수질 좋은 식음수를 제공하기 위해 2000여만원을 지원한 지하수 관정(우물) 공사도 차질 없이 준공됐다.

또 목축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몽골의 특성상 어려운 가정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가축지원과 장학금 지원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2006년 빈데르솜 12가정에 각 25~30마리씩 처음 지원됐던 가축은 어려운 가정에 재분양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56가구 1700여마리로 크게 늘었다.

여수시의사협회 회장인 박기주 여수사랑요양병원장이 청각 이상을 호소하는 몽골 어린이를 진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5년부터 빈데르솜과 바양아뜨락 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 매년 등록금 등 장학금을 지원해 은현봉사단은 지금까지 40여명의 지역 인재들에게 대학진학을 통한 꿈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역시 몽골 최고 수준의 몽골국립대 의과대학에 합격한 라몽데르(19) 학생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다수의 의사와 교사를 배출하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규식 여수은현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몽골 빈데르솜과 바양아트락솜 어려운 가정 등에 가축지원과 장학생선발, 밀가루 지원, 의료 봉사 등 다양한 사랑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여수은현교회 선교팀은 여수지역 대표 의료봉사 단체인 지구촌 사랑나눔회와 함께 몽골 주민들을 위한 내과·소아과·산부인과와 안과· 치과 등 종합병원 수준을 방불케 하는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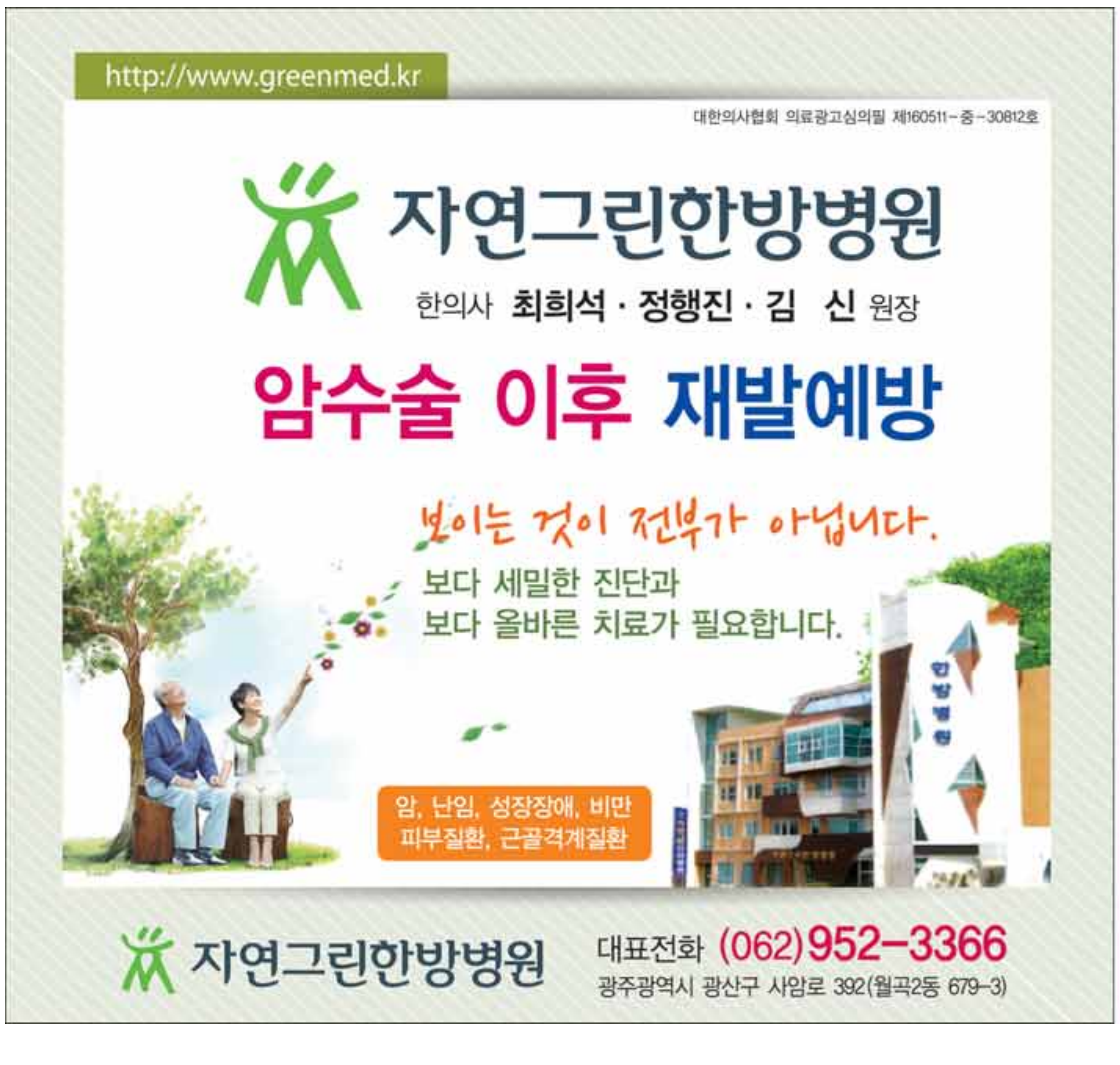
내달 3일 거북선공원서 벼룩시장…판매 참가자 신청 접수

여수시는 "내달 3일 오후 거북선공원에서 시민들의 알뜰장터인 벼룩시장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싸게 사고팔 수 있는 벼룩시장은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개인 참가자는 1공간, 단체 참가자에게는 2공간이 배분된다.

판매 품목으로는 의류, 잡화, 음반·도서, 가전제품, 골동품 등 중고생활용품으로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말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의 산업경제〉소비자〉벼룩시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08)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영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은 "여수벼룩시장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의 장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올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이번 벼룩시장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